

반석인가? 모래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집을 소개하셨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먼저 주의할 것은 이 두 개의 집이 외관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대하고 웅장한 고층 빌딩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는 기초가 아니라, 집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집은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집이다. 쌍둥이처럼 육안으로 보기에는,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집은 똑같은 집이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기초가 다르다는 사실밖에는 없다. 똑같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고, 든든히 서있는 집은 반석 위에 견고히 지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고 하셨다.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처럼 행함에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기초가 아니라, 보이는 집 자체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대로 지켜 행한 사람은 견고한 고층 건물을 지었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초라한 초가집을 지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말”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의 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지었는가에 있는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외관상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행함이 아니라, 근본 기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잘 조화를 이룬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쁜 열매는 썩고 벌레 먹은 열매처럼 외관상으로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도 똑같은 모습과 열매와 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하며 삼가도록 요구하신다. 심지어는 수많은 군중을 사로잡는 설교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변장하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함의 기초, 근거,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나타난 외관적인 모습은 차이가 없다. 땅 위에 드러낸 모습은 똑같은 집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땅 속의 기초가 다른 것

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하는 차이이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